

총장-뉴스레터 – 91 (2024-10-11)

기브온 사람들의 꾀 (여호수아 9-1-27)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길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 9:26-27)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를 거두자 가나안 전역에 일종의 비상이 걸렸다. 특히 기브온이 바짝 긴장하였다. 기브온은 여리고에서 서쪽으로 약 17 마일, 아이에서는 남쪽으로 5 마일 거리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다음 목표가 되기에 충분했다.

기브온 주민의 속임수 (9:1-15)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과 혈전을 벌이려고 동맹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움하기보다는 항복함으로 그들의 안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기브온은 당대의 대도시였지만 현재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주거지는 '엘지브'라는 아랍어 이름으로 불리는 작은 촌락에 불과하다. 기브온 주민은 성경의 처음 책들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야 할 부족으로 자주 거명된 히위인이었다. 히위인은 족장 시대에 세겜도 차지하고 있었다.

기브온 주민은 간계를 꾸며, 해진 옷을 걸치고 곰팡이 난 식량을 준비했다. 그들은 길갈이 진을 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먼 지방에서 온 사신 행세를 했다. 사신들은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데, 이는 의례적인 인사 형식일 뿐이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들의 행색을 보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평화관계를 유지하는 맹세를 하였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평화조약을 체결한다. 족장들은 조약을 맺기에 앞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보통은 우림과 둠뿔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의 속임수를 알고도 진멸하지 않았다 (9:16-27)

기브온의 거짓이 밝혀졌음에도 이스라엘을 기브온을 멸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매우 실망하여 그들을 비난하였다. '어찌하여'라는 22 절의 표현은 당황스러움과 원망스러움의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기브온 거민의 사신들에게 속은 것은 이들의 거짓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기 반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실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부터 언약을 맺을 때 반드시 요구되는 성실성을 결여한 것이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 거민들이 한 거짓말은 이미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과 같은 정도의 죄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아라르' 즉 '저주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기브온 거민들은 진멸당하는 것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께 속하게 되었다. 곧 성소에 속한 종들이 된 것이다. 기브온 거민들을 노예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조치는 3 세기 뒤의 솔로몬 시대에나 취해졌을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게 된 기브온 거민 (9:27)

본 사건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된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노역을 하는 장소를 이렇게 '하나님의 집' 그리고 본절에서 언급된 '여호와와 단을 위하여'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한 것은 기브온 거민들이 종으로서 노역하는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기브온 거민들은 이방인에게 임할 저주를 면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 후 느헤미야와 더불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기브온 거민들이 동참했던 사실과(느 3:7)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의 대열에 기브온 거민들이 들어 있는 사실 (느 7:25)을 볼 때, 기브온 거민은 완전히 이스라엘 속에 동화된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기

기브온 거민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불과 3 일 만에 드러났다. 이스라엘은 이 일로 적잖은 충격을 겪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명하신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로 큰 충격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속인 기브온 거민들을 멸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는 바 파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후대에 이스라엘 왕 사울은 기브온 거민을 죽임으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하고, 사울의 자식들은 비참한 저주를 받았다. 그러나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과 운명을 같이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함께 잡혀가고, 함께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함께했다.

한편 기브온 거민들은 그들의 거짓말의 대가로 자손 대대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 노릇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종노릇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임무를 맡게 됨으로써 오히려 복된 자들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복된 미래를 보게 된다.